

칼럼

임성욱 시인 · 사회복지학박사



한가위의 명과 암

마치 광풍이 휩쓸고 지나간 듯하다. 그만큼 지난 추석은 길고 다사다난 했던 것 같다. 이 기간 동안 어떤 이는 해외여행을 다녀왔고 또 다른 이는 국내여행을 즐겼다. 하지만 고향집에도 못가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 이유도 다양하다. 노숙자여서, 백수여서, 결혼을 못해서 등으로 그의 대부분의 경우는 집에서 그냥 지냈다고 한다.

그중에서도 독거노인들을 비롯한 소외계층은 쓸쓸한 명절을 보냈다는 것이다. 오히려 평상시보다 더 낫다는 소리까지 나올 정도다. 그도 그럴 것이 찾아올 가족도, 지인도 없었기 때문이다. 반면에 TV 등 영상매체들은 명절의 즐거운 모습을 줄곧 방영했다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이 컸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사회의 극단적인 양면성이다. 이를 조금이라도 해소

하기 위해서는 빈부격차를 줄여야 할 것이다. 물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떠한 의미에서든 격차는 존재했지만 그것이 우리네 삶의 모습인지도 모른다. 어쩌면 숙명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극한 상황만은 피하자는 것이다.

질은 그들은 음습함을 만들고 이는 곧 사회체제를 무너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역사가 이를 증명해주고 있다. 해가지지 않는 나라라고까지 그 명성을 떨쳤던 로마제국도 결국은 무너졌다. 마케도니아, 투르코제국 등도 마찬가지다.

중원까지 호령했던 고구려도 그랬다. 영원할 것 같았던 엄청난 제국들이 이렇게도 허무하게 무너졌던 것은 결국 밝은 만큼 상대적으로 짙어지는 어둠을 원만하게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어둠은 무엇인가. 극단적인 빈부격차,

이로 인해 발생한 소외계층, 가정 불화, 이혼, 폭력 등으로 형성된 반사회적 행위 등이 어우러진 병리현상이다.

이번 추석에도 이런 현상들이 많이 표출됐다는 것을 결코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각종 언론매체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전달되었던 것만 해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명절임에도 꼬부라진 허리를 펴지도 못하고 폐지를 줍고 다니던 노인들, 포래의 아이들이 가족과 함께 행복해할 때 시설의 한 구석에 앉아 TV 화면만 텅 빈 눈동자에 넣고 있던 시실 아이들, 누군가가 함께 해주지 않으면 자신의 위치에서 한발자국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는 시각장애인들, 가족들 간의 혈투, 상해, 살인, 방화, 교통사고 등이 바로 그것이다. 앞으로도 문제다. 얼마나 많은 이혼부부가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

에, 대법원에 따르면 매년 추석 연휴 직후에 법원에 접수되는 이혼 건수가 급증한다는 것이다. 2015년의 경우 9월 이혼 접수 건수는 3,190건이었는데 추석 이후인 10월에는 3,541건으로 증가했다는 것이다. 명절중후군 중의 하나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금년에는 상당한 가정이 이혼가정으로 변모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고향집에 남아있는 노인들의 명절중후군 역시 마찬가지다. 명절이 오기 두·세달 전부터 자식들과 손자·녀들을 기다리는 맛으로 살다가 막상 그들이 오면 허릿밤 정도 자고 가버리기에 그 후 유증이 여간 아닌 것이다.

그래서 명절 우울증을 겪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긴 기다리, 짧은 만남이 것이다. 명절은 이래저래 우리들에게 병을 주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 또한 필요하다고 본다. 이런 현상도 이제는 일개 가정에 맡길 수만은 없기 때문이다.

가정은 우리사회의 가장 작은 사회다. 세포조작이다. 때문에 가정이 올바르게 정립되어야 사회가 편하고 국가가 부강해질 수 있다. 그래서 가정을 바로 세우는 일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 그러면 우리사회의 온갖 부정적 현상들이 사라질 테니까.

社說

몰카 단속 강화해야 한다

최근 5년 동안 불법으로 수입된 몰래카메라 2254개 적발됐다. 자동차 열쇠 모양의 몰카부터 안경, 볼펜 등 다양한 형태의 몰카가 불법으로 수입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기획재정부위원회)이 관세청에서 받은 몰래카메라 불법수입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적발된 몰래카메라는 2254개다. 금액으로는 약 1억 4900만원에 이른다.

몰래카메라 불법 수입 단속의 어려움은 2013~2017년까지 기록된 단속 건수에서 알 수 있다. 2013년에는 한 건도 적발되지 않았으나 2014년 불법수입 몰래카메라 355개가 적발됐다. 2015년은 1135개, 2016년에는 다시 0개, 올해에는 지금까지 764개가 적발됐다.

이처럼 불법수입 단속 실적이 해마다 차이가 나는 것은 기획단속이 아니면 적발이 어려워왔다.

적발 건수가 갑자기 증가한 2015년과 올해 모두 기획단속이 이뤄졌다.

특히, 2015년엔 워터파크 여자 샤워실 내부를 촬영한 몰카범이 잡히며 불안감이 확산하자 관세청이 단속에 나섰다. 올해에도 여름철 피서지에서 생기는 '도촬' 범죄를 예방하고자 관세청이 7월 10일부터 8월 11일까지 역시 기획단속에 나선 바 있다.

더불어 적발된 불법수입 몰래카메라 2254개 중 가장 많은 형태는 자동차 열쇠형 몰래카메라였다. 총 702개가 적발됐다.

밀수·부정 수입 경로와 방식이 점차 지능화하고 다양해져 몰래카메라 범죄 위험성이 커지는 만큼 몰래카메라 적발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방지했다가는 그 폐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능동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기고

김주섭 강진경찰서 112상황팀장



청소년 범죄예방, 강화된 신분증 대체수단 필요

청소년이 보여준 까까 신분증에 속아 술을 팔았다가 수천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된 주점의 주인이 청소년과 부모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받았다.

이는 청소년이 비록 신분증을 숨여 술을 마셨지만, 이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청소년에게 과징금 손해를 물을 수 없고 청소년 확인을 게을리 한 주점 책임을 물은 것이다.

현행 청소년 보호법에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 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있다.

또한 2015년 청소년보호법 개정으로 술·담배 판매 영업자는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 금지' 표시를 영업장 안의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청소년보호법은 물론 개정안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소년들이 담배, 술 등 청소년 판매 금지물품을 쉽게 구입하여 사용하는 모습을 볼 때 청소년보호 제도장치의 미흡으로 안타깝기만하다.

우리는 흐릿한 골목길이나 인적이 드문 한적한 곳에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중·고등학교로 보이는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또한 인터넷상에는 청소년 판매 금지물품인 술과 담배를 구입하며 청소년 범죄를 더욱 부추기라도 하듯 온라인을 통해 위조한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이 버젓이 거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거래되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은 대부분 훔치거나 주운 것들이지만 이를 자신의 신분증으로 제시하여 술이나 담배를 사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불법 거래한 신분증을 이용해 사기 행각을 하는 등 제2, 제3의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가 허다하여 이는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본인 확인하는 신분증으로 만 17세 이상의 경우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게 된다.

운전면허증의 경우 매 10년마다 적성검사를 통하여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으로 운전면허증을 갱신하는 의무사항이다.

하지만 주민등록증의 경우 분실이나 훼손, 성명, 생년월일 또는 성별의 변경,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할 때 재 발급토록 명시되어 있지만 주기적으로 재 교부해야 하는 강제사항은 없다.

유해매체물이나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을 막고, 청소년이 유해업소에 출입하는 것을 규제하는 등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기성세대들의 관심과 사랑이 절대 필요할 때이다.

판매 업주는 술이나 담배를 팔 경우 청소년연령 확인은 얼굴과 나이를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으로 반드시 꼼꼼하게 확인해야 하며, 어른들 또한 청소년에게 술, 담배를 절대 심부름하게 해서는 안 된다.

날로 심각해지는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신분증 확인은 이제 한계가 있는 만큼, 더욱 강화된 신분증 대체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신문으로 배우는 千字文

巖 바위 암 巖 岫 杳冥
岫 산골 수
杳 이득할 묘
冥 어두울 명

▷ 뜻: 큰 바위와 메 뿌리가 묘연하고 어둠을 말함.

湖南新聞 contact information including address, phone numbers, and subscription rates.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mail: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Large advertisement for 'Yaho' (야호) featuring a cartoon illustration of a green dragon and text promoting youth activities and community participation.